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김연수¹, 김수정^{2*}

¹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²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교수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reject on the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Yeonsoo Kim¹, Suheung Kim^{2*}

¹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²Professor,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접적, 간접적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67명(남 117명, 여 150명)과 그 담임교사로 설정하였다. 거부·제재 양육과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과 지니는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 후기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뿐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거부·제재 양육, 공격성, 사회불안, 학교적응, 아동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their social anxiety,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67 children(male 117, female 150) and 10 homeroom teachers participated.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and social anxiety. Children'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heir homeroom teachers' reports.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significantly influenced aggression as well as school adjustment, but didn't influence social anxiety. Both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and aggress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ur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mediated by their aggression.

Key Words :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control, Aggression, Social anxiety, School adjustment, Late childhoo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937)

*Corresponding Author : Suheung Kim(sjkim505350@daum.net)

Received November 11,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3,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며 학교생활에서 안락함을 느끼고, 수업 및 학업에의 적응, 교사 및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으로서[1] 이러한 각 영역의 성공은 이후 교육적 진전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3]. 최근에는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변인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적응은 변화가 수반되는 이행기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행기 동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변화로 인해 아동들은 심리적 혼란이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아동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청소년기로의 전이가 본격화되는 이행기라고 할 수 있다[2,4,7]. 이 시기 동안에는 독립적 대처와 자기조절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한다[8]. 아울러 이 시기 동안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발달단계, 즉 청소년기 동안의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고려하여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이 보고되는 대표적 이행기 중 하나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학교환경 특성, 가정환경 특성, 아동의 개인적 특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여 왔다. 학교환경적 측면에서 아동이 인식한 교사의 지지[9,10] 수준이 높고, 교사-학생 간 친밀감[11]이 강할수록 아동은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된 가정환경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취업[2,5], 가정환경자극[12], 부모의 학교 참여[13] 뿐 아니라 부모 방임과 학대[14], 부부 갈등 및 부모의 양육태도[4]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은 성별[15], 탄력성[16], 사회불안[4] 등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이 있었다. 이 중 가정환경 특성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차적·기초적 환경이며, 가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와 같이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의 발달적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을 탐색할 때 주요한 변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 등의 사회적 적응을 포함한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동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15-20]. 반면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통제적·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4,16,21].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수정 등[4]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및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인 훈육, 무시/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는 양육행동인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거부·제재 양육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을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부·제재 양육은 발달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7,22-24]. 예컨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정[22]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은 학교적응과도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지영 등[25]은 자신을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동들은 학업적 효능감이 낮고 학교생활에의 참여도가 낮은 등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곤란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불안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라 할 수 있는데[25],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인다[21]. 한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정과 정윤경[25]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은 사회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에서도 곤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26]. 요컨대 거부·제재양육은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불안 뿐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정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초등학교생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사회불안과 공격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변인들은 서로 관련을 보이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변인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부분적인 관련성만을 탐색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청소년기 동안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6],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탐색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담임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측정치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칫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적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지영 등[26]이 지각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두를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모든 측정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 지각,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 수집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공격성, 그리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거부-제재 양육행동, 사회불안, 공격성, 학교적응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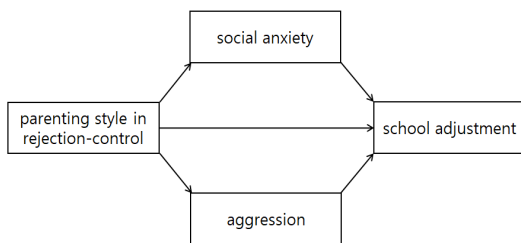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방법

2.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88명과 각 아동의 담임교사 10명이었다. 288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응답 21명을 제외하고 총 267명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장 및 담임교사의 일차적인 동의를 받은 다음,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아동의 가정마다 연구설명서 및 연구참여동의서를 발송하여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양육행동지각,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각 아동의 담임교사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2.3 도구

2.3.1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지각

양육지각은 박영애[27]가 제작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30문항 중 거부-제재 양육에 관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나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다', '나에게 보기도 싫다고 하실 때가 자주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2.3.2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aine와 동료들[28]이 개발하여 변안된 반응-선제적 공격성 질문지(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PRAQ) 중 선제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제적 공격성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선제적 공격성 척도의 문항은 "누가 더 힘이 센지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과 싸웠다", "다른 아이의 물건을 빼앗았다" 등으로, 5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격성 측정은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참여 아동

의 답임에게 해당 아동 개개인의 이름을 상단에 적은 다음, 그 개별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문항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다.

2.3.3 사회불안

아동의 사회불안은 LaGreca[29]가 제작한 18문항과 문혜신과 오경자[30]의 척도 9문항을 합한 총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수행에 대한 불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8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91, 수행에 대한 불안 .92,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78, 전체는 .94였다.

2.3.4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척도[31] 24문항을 답임교사에게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의 평가는 공격성에 대한 측정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교사적응, 수업적응, 또래적응, 학교생활적응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교사적응 .90, 수업적응 .90, 학교생활적응 .90, 또래적응 .9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였다. 우선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인 및 변인 내의 관찰변인들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GFI, TLI, CFI, RMSR을 통해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R은 .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다음으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 사회불안,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3.1 주요 변인 간 상관

주요 변인 간 상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사회불안 및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반면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은 공격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공격성 역시 답임교사가 평정한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Table 1.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1	2	3	4
parenting style in rejection-control	1			
social anxiety	.21***	1		
aggression	.21***	-.09	1	
school adjustment	-.29***	-.18***	-.31***	1

*** α .001

3.2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격적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의 측정이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변인에서 관찰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였다. 이는 관찰변인을 통해 잠재변인이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보여주

Table 2. Parameter Estimates of Final Model

Paths	B	β	SE	C.R.	P	SMC
rejection-control → social anxiety	.22	.24	.12	1.86	.06	.06
rejection-control → aggression	.18	.24***	.05	3.29	<.001	.06
rejection-control → school adjustment	-.22	-.27***	.06	-3.62	<.001	
social anxiety → school adjustment	.01	.01	.04	.12	.91	.20
aggression → school adjustment	-.33	-.30***	.08	-3.88	<.0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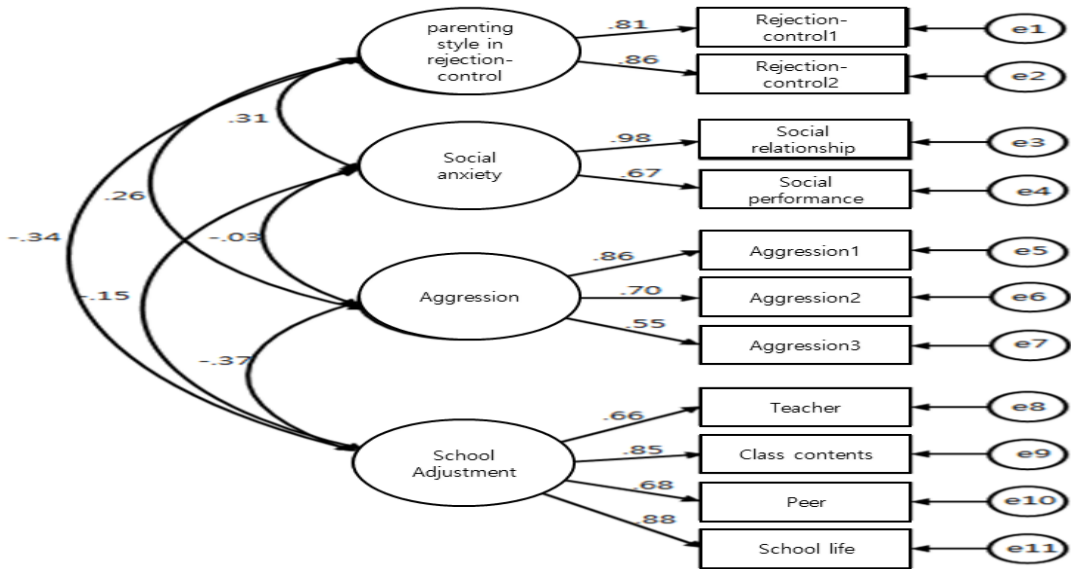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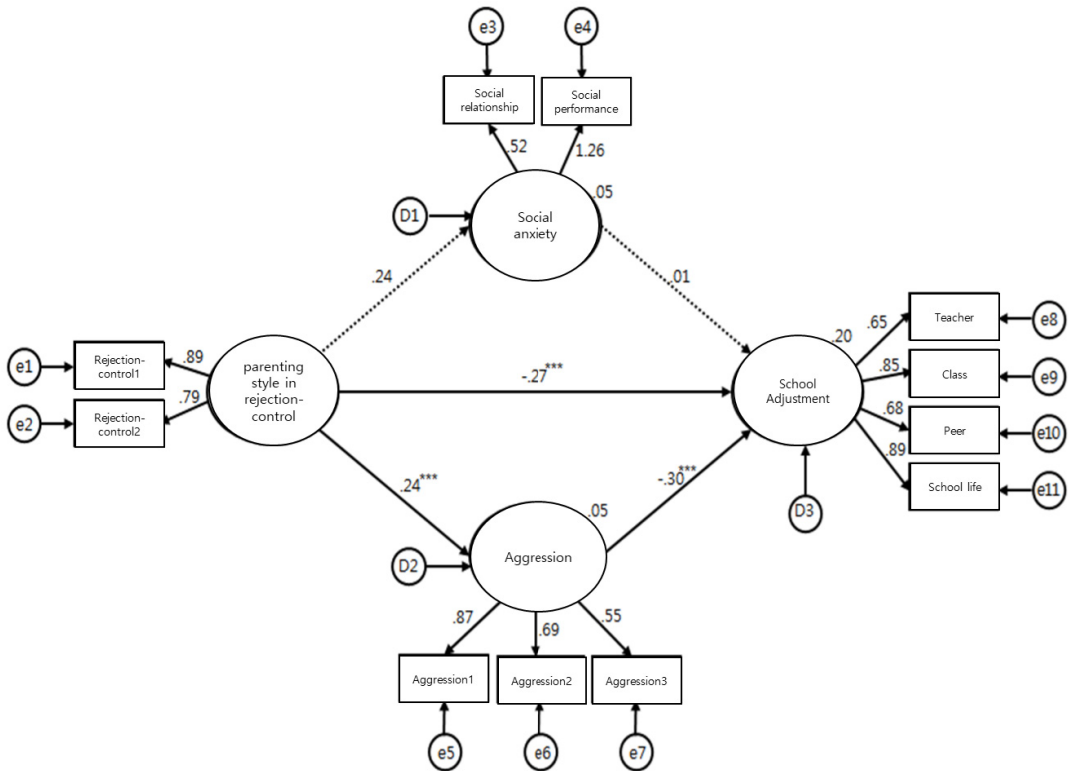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 .87, CFI .91, GFI .92, RMSR .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3.3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 사회불안,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87, CFI .91, GFI .92, RMSR .05로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Fig. 3에, 요인들 간 경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 3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각된 거부-제재양육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 부정적 연계성이 있었으며($\beta = -.27, p < .001$), 아동의 공격성도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부정 연계성을 보였다($\beta = -.30, p < .001$). 이는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제재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서 곤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연계성이 있었던 반면($\beta = .24, p < .001$), 사회불안에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 부분적인 관련을 보였다($p = .06$).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경향은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사회불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라는 확인되었으나,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양육지각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관련 변인들, 즉 아동의 사회불안 및 공격성 간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변화가 수반되어 아동들의 학교적응에서의 곤란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행기 중 하나로서, 청소년기 등 이후 단계에서의 발달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적 양육은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은,

학교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거부-제재적 양육과 공격성 간 상관을 보고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서[23,24]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학교적응에도 부정 영향을 미쳤다는 김수정과 박금주[3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포함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김수정과 박금주[33]의 연구 결과를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는 김수정 등[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제재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를 또래와의 활동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보다 빈번히 표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의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는 사회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던 선행연구[2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수정 등[4]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었다. 사회불안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이 보고되었던 Stein 등[3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학업적 적응을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의 차이가 대상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불안은 부모의 갈등지각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25]를 고려하면, 가정환경 변인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부부간 갈등지각은 사회불안을 통해,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 제재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불안 보다는 주로 아동의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초등학교 4학년생의 학

교적응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았다.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의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거부-제재 양육에서 사회불안으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사회불안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간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아동 후기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뿐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이행기 동안의 학교적응을 고려할 때 주요한 가정환경 변인으로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는데,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동 후기 내에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거부-제재 양육이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실증연구로서,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탐색되어 온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장면에서의 변인 뿐 아니라 가정환경 변인 및 개인차 변인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의 학교적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인식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적 측면이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방식의 잠재적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 지각, 사회불안 등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 수집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를 넘어서서 변인 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의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입학 등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학교적응에 대

해서도 여전히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학교적응 관련 변인과 경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1] G. W. Ladd, B. J. Kochenderfer & C. C. Colemam.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2] Y. Yi & E. Jun. (2019).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i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ocused on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3*(1), 101-121.
- [3] G. W. Ladd & W. Troop-Gordon. (2003). The role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4] S. Kim, Y. Jeong & H. Park. (2018).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21-41.
- [5] Y. Oh & H. Moon. (2013).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Child's Internet Immersion,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6), 559-569.
- [6] C. J. Chang & H. W. Yang.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2), 5-29.
- [7] M. Garton & I. Morrison. (2000). Concluding comments. Transfer and transition: The next step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4), 443-449.
- [8] D. Stipek, R. Feiler, R. Byler, S. Milburn & J. Salmon. (1998). Good beginnings: What difference does the program make in preparing young children for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1-66.
- [9] N. Kim & J.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cademic Engagement: Differences in the Meaning and Roles of Teacher Support and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763-789.
- [10] M. R. Reyes, M. A. Brackett, S. E. Rivers, M. White &

- P. Salovey. (2012). Classroom emotional climate, stud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3), 700-712.
- [11] H. Kim. (2015). A Study on the Teacher Student Relationship, Student's Ego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School-Life of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22*(1), 49-71.
- [12] H. Bae & C. Huh. (2019).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to First Grade according to Latent Profiles of Home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3*(1), 75-99.
- [13] S. Kim, S. Lee, Y. Koo & K. Lee. (2016).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3*(4), 139-154.
- [14] S. Choi & M. Yoo. (2019).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Abuse on Longitudinal Changes in Late Childhoo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1-15.
- [15] S. Park & C. Yoon.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47-169.
- [16] M. Ki & M.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4th,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585-612.
- [17] S. Kim. (2011). Change in Aggress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Effects of Early Protective Factors: focusing on 4th grade to 8th grade.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9*(1), 39-66.
- [18] M. Min. (201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3*(4), 101-126.
- [19] A. E. Awoyemi & D. O. Dombo. (2016).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secondary school adolescents in Bayelsa state, Nigeria. *IFE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24*(2), 10-16.
- [20] E. M. Hakvoort, H. M. Bos, F. Van Balen & J. M. Hermans. (2010).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in intact famil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2), 182-201.
- [21] W. A. Arrindell, M. G. T. Kwee, G. Methorst, J. Van Der Edne, E. Pole & B. J. M. Moritis.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22] M. Kim. (200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23] L. R. Alink et al. (2009). Maternal sensitivity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discipline and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8*(1), 99-120.
- [24] A. Skinner et al. (2014). Neighborhood danger, parental monitoring, harsh parenting, and child aggression in nine countries. *Societies, 4*(1), 45-67.
- [25] S. Kim & Y. Jeong (2019). Exploring Rumination in childhood: On Parental Conflict, Parenting Styl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6*(2), 59-76.
- [26] J. Choi, K. Moon, H. Ahn, K. Hong, J. Kim, E. Choi & J. Park. (2018). Differences in Self-reported and Peer nominated Aggression Groups in Schoo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27*(3), 29-51.
- [27] Y. Park & O. Chung. (1996).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89-212.
- [28] A. Raine et al.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59-171.
- [29] A. M. LaGreca.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thhor.
- [30] H. Moon & K. Oh (200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29-443.
- [31] J. Lee. (2000). *A Study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by the Communication Types of a Classroom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 [32] S. Hong. (201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33] S. Kim & K. Kwak.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lated to the School Adjustment of Grade 1 and 2 according to Parental Income: Parenting Efficacy, Self Concepts, and Prosocial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3), 85-105.
- [34] M. B. Stein, J. R. Walker & D. R. Forde. (1996). Public speaking fears in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김 연 수(Yeonsoo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과(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석
사)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박
사)
- 2017년 8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상

담심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발달심리학, 영유아발달

· E-Mail : yskim17@jj.ac.kr

김 수 정(Sucheung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학사)
- 1990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석
사)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박
사)
- 2017년 6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관심분야 : 발달심리학, 아동의 학교적응

· E-Mail : sjkim505350@daum.net